滿鮮日報
朝刊
朝夕刊合八面
新京 滿鮮日報社

戰時下의 諸經濟政策
國民의 絶大協力必要
物價對策에는 當業者의 協定價格을 尊重
當面의 財經諸問題 青木藏相 談

【戶倉九日發國通】 服部次로 歸省한 青木藏相은 九日午後三時半 長野縣更級郡牧鄕村의 生家에 入하얏는데 明年度豫算의 施行, 經濟統制의 强化, 戰時物價對策, 公債消化와 金融政策等 當面의 財政經濟諸問題에 關하야 左와 如한 談話를 行하얏는데 特히 物價對策으로서는 當業者의 協定價格을 尊重하는 旨를 言明하얏슴은 政策從來의 物價委員會中心主義에 對하야 稍히 注目되고 또 公債消化에 關하야는 公務方法에 依然히 日銀引受主義를 嚴守한다는 極히 注目할 意見을 開陳하얏다 (寫眞은 青木藏相)



明年度豫算

昭和十五年度 一般會計槪算은 總額五十九億圓으로서 本年度豫算額에 比하야 約十二億圓의 增加인데 이는 主로 軍備의 充實에 關한 經費, 軍事補助, 傷病軍人保護其他 軍事後援保護에 關한 經費生産力擴充에 關한 經費, 貿易振興에 關한 經費等에 多額의 經費를 要함으로 ...

計劃經濟와 國民의 覺悟

適正價格 統制價格

資金統制 公債消化

專賣總局에 麥粉科新設
十日專賣制實施

新政權의 幹部養成機關
中央陸軍軍民訓練團結成
九日上海서 盛大擧行

【上海九日發國通】 新中央陸軍軍民訓練團을 開設하기로 決定하고 九日午前十時부터 그 結團式이 上海郊外의 同訓練所에서 盛大히 擧行되엇다 ...

本多中將着任

【南京九日發國通】 新任支那派遣軍總參謀副長 本多政材中將은 九日午後四時 南京飛行場着 飛行機로 着任하얏다

陳, 飽, 葉氏出席

【上海九日發國通】 國民黨中央執行委員會主席汪精衛氏 ...

蔣必死의 冬期攻勢
麾下各軍命令不服

【太原九日發國通】 四月攻勢以來 數回의 攻勢에 失敗한 蔣介石은 이번에는 麾下各軍에 對하야 冬季攻勢命令을 發하고 제법 하게도 失地의 挽回를 企圖하고 잇는바 蔣의 攻勢命令의 意圖는 重慶政府綱紀化에 伴하는 民心離反의 防止 國共軋轢의 緩和 新中央政府에 對한 宣傳等이 잇고 ...

强迫的示威로
重慶은 死의 都
脫出한 朝鮮婦人 談

【滿口九日發國通】 ...

聯盟의 蘇聯制裁
南米諸國의 態度가 注目處

【壽府九日發國通】 ...

蘇芬抗爭과 獨逸
責任은 英에, 獨의 中立은 當然
獨公使館談

寒氣室

今日附錄共八面

明年度의 朝鮮開拓民
北安、龍江間島에 入植
綜合的으로는 豫期대로의 實績

인업개척국책의 완수(完遂)에 대하야서는 국방산업 각부면으로부터 조급히 충실시킬 필요가 잇서 일만 양정부는 앞서에 二十개년 一백만호 입식계획을 발표하고 금년에 다시 인반개척국책의 확충 기본요강을 결정하야 몃년도부터 一단의 적극적수행이 기대되고 잇는데 제三년도인 본년도 외지의 백만호계획실적은 더욱파가치 대체로에 정대로 진척하야 의용군은가 를능가하는것으로 보인다 하는세는 그실적은 一〇〇%

▲日本開拓農民 百萬戶計劃은 昭和十二年(康德四年)을 第一年度로하야 豫定計劃은 (集團集合을 合하야)

十二年	六、〇〇〇戶
十三年	一五、〇〇〇
十四年度	二一、〇〇〇

로 이에 對하야 本年十一月末 까지의 實績은 集團 三六〇戶 集合 ……

▲鮮系開拓民 鮮系開拓民入植計劃은 ……

▲國內原住民對策 國內原住民에 對하는 開拓計劃은 ……

開拓局을 設置
拓務省、開拓政策에 萬全之策

【東京十日發國通】 기원二천六백년을 기하야 一단의비약을 하게된 일본개척민정책에 대하야 척무성(拓務省)에서는 전정을본명년도예산에 기하야 신시계획에 만진을 기하고잇고 ……

三稅를 廢止
國都小市民層生活明朗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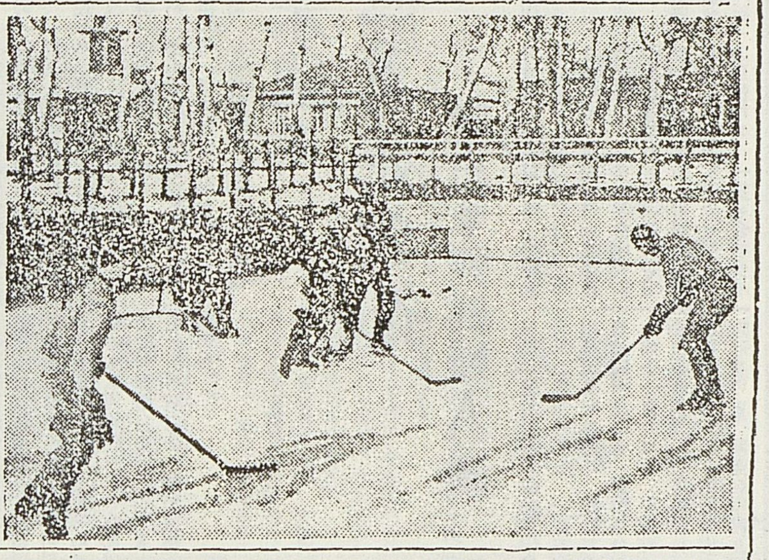
국도시민중 수입이 적은계급에 부과되여잇든 三세(稅)가 명년一월부터 폐지되기로되엿다 ……

우리말을 使用하자
氷上競技外來用語使用廢止

(大滿洲帝國氷上競技協會) 대만주제국 빙상경기협회에서는 종래外지 "스피ー드스케ー팅"이라든가 "피규어스케ー팅"이라는 외래어를사용하고의섯는데 一만어一체의방침으로부터 이를고치고 다음피가튼여자(漢字)를사용하기로되엿다

滑氷(스케ー팅) 滑走(스피ー드스케ー팅) 型滑(피규어스케ー팅) 氷球(아이스헉키ー)

新奉對抗氷上競技豫選



年關에 列車增發
上下普通急行을 各一列車式

【奉天九日發國通】 ……

續々檢擧
事件은 意外에 昨春에서 發展
新京賽馬場의 不正事件

勤勞奉仕隊
明夏는 長期와 短期班으로 編成

【東京九日發國通】 ……

小作家·畵伯들 飛行機로 國都求景



하늘을그린作文이 一등에입선한 신경소학생남녀 十二명은 당선의상으로 十일오후한시부터 신경남비행장에서공무협회원(弘報協會員)의 안내로 六인승 "하야부사"가에타고 약二十분간공중으로부터 국도구경을하엿다 (사진은 비행기를타고 내린후에 만세를 부르는소작가(小作家)와화백(畵伯)들)

눈물의 萬歲소리는 只今도 귀에쟁쟁!
南京陷落의 追憶을 말하는 脇坂少將

【東京九日發國通】 오는十三일은 항일(抗日)의 고도남경(南京)이 우리황군(皇軍)의 정예의맹공앞에 드디여 완전히 점령되…

國通小澤部長 追悼式執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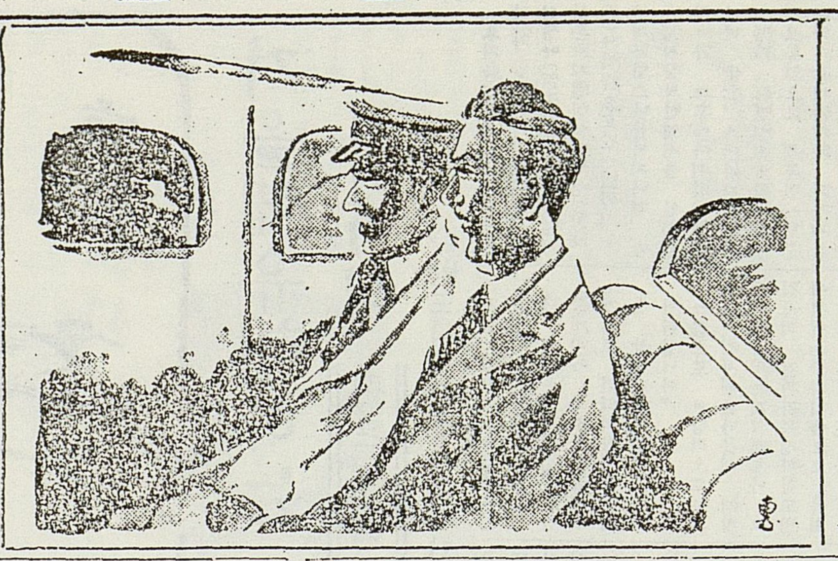
防犯勇士를 表彰

文化向上運動 滿洲敎育會의

一九三九年度懸賞小說當選作品

薔薇水車殺人事件 (12)

佛蘭西 이브다도아 作、幽靈記者 譯 / 畵·金惠一



누구나 아는 事實(三)

「사람의 시체와 가티 동행하는 것은 그다지 긔분이 조흔 일은 아니다。그러나 라팡부장은 직업이 직업이니만치 별로 아모러치도 아는 모양으로 얼골빛 하나 변하지 안코 무엇을 생각하고 잇다。

ㅣ사건의 해결에 여념이 업는지 또는 저녁밥의 반찬이라도 생각하고 잇는지 거긔까지는 아는 수가 업스나—

나는 사실 엇지할 줄을 몰랏다。가만이 잇자니 좀 이상하고 그러타고 부처가티 하고 안젓는 라팡부장에게 말을 부칠 용긔도 업고—나는 주머니에 손을 느어 담배를 차젓다。

무엇인가 싹싹한 것이 손끗헤 다엇다 순간 나는 쓰금한 것이 가삼을 지내가는 것을 늣기엇다 얼른 부장의 눈치를 보니 천행이다 나의 행동은 못 본 모양。

손끗헤 다은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업시 마드므 시체에서 씨내 가진 제이다。나는 또 한번 부장의 얼골을 훔쳐보앗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아모것도 모르는 모양ㅣ이 속에는 과연 무엇이 쓰여 잇슬가? 사실ㅡ각ㅣ 이삼추라는 문자를 이것보다 더 질풍한 할 수는 업슬 것이다。금방 쓰내 보고 십흔 충동이 그야만 보굴뚝 갓다 시침을 뚝 싸고 쓰내서 펴들면 엇덜가?

『그것 무엇인가?』라고 부장이 뭇는다。

네 지의 일긔(日記)입니 금다」라고 내가 대답한다

『오늘 사진의 메모라도 긔록 한냐나?』

『네 사실지는 타지이 후치음으로 사람의 시체를 보앗스니까요。』

그러케 말하면서 나는 네의 샙갠실을 쓰내드렷더고하자

『야! 그것참 조흔 연필을 가젓네나 그려。』라고 부장이 또 뭇는다。

『훈둡하지요。아비지한테서 긔념으로 바든 것입니다。』

『이적까지 자네가 그런 연필을 갓젓는 건 못 보앗는데?』

이런 이야기를 시침을 뚝 떼고 하면 얼마나 자미잇슬가。

적어도 나는 경찬이 마드므의 죽엄에 대한 중요한 증거품이 될 두가지의 물건을 가젓다 이 두가지가 입슬끼가트면 혹은 마드므의 죽엄의 수수께끼는 영원히 풀지 못한는지 모른다。

얼마 아니하야 우리들의 자동차는 몬도류시가에 드러갓다。

돌과 벽돌의 한축잇는 거리엿다 경찬서에 도착하자 부장의 명령으로 두사람의 정관이 담배와서 마드므의 시체를 운반해 드러갓다。

나는 해부의(醫)와 맛나 내일 아츰 일즉이 해부의 결과를 알려주기를 약속하고 마팡부장에게 개인사를 하고 자동차를 운진하야 패루군씨의 아비지가 경영하고 잇는 신문사로 갓다

그래도 시체를 데웟슬 쌔는 그러치도 안엇스나 시체를 미러노코 혼자서 운전하고 잇스니 싸 빈 안간 이 자동차에 타고 잇는 것이 죽기보다도 시뒤다

그래서 자동차를 신문사로 갓다두기로 한 것이다。

트ㅣ케에도 라와서 빈와한 거너름한 박휘돌고 보니 과연 어데들가나 마드므의 죽엄에 대한 소문으로 누구누구 할 것 업시 마을전체기 눈을 붉히고 수근대고 잇다 물론 오날 하다가 중지된 롱방아동기자동자정수가 이미 윤로서는 중요。넌○행사이만지。이무이야기가 뒤석겨서 제一첫번표에 쓰여 잇는 수수께기를 몰라서 안타까웟다는 등 그래서 겨우 제二의 롱방아동이터 이제부터는 좀 예교ㅣ드를 내려고 찬득볏럿드니 생각도 아니한 일이 생겨 생겨 죽도 밥도 아니 되엇다는 등 증말 여러가지로 타지이 만타는 등 그야말로 마을 전체가 쌀싹 뒤집히듯이 야단이다。

내가 드른 여러가지의 소문을 종합하면 마드므의 죽엄은 자살일 것이라는 파칙이 제一 반이 생각하고 잇는 것이엿다 자살의 원인에 대하야서는 위니나 안도류가 구설에 모트지나 아늘가하고 속맘으로 퍽은 심하얏스나 거긔까지 세밀히 관찰한 사람도 업는 모양이잇다。

나는 "싸노르만틔에 가서 페루롬기다려기로 하얏다。그쌔 바로 나의 등뒤에서 무슨 핑장한 이야기나 하는 듯이 입에 침이 마르지 안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렷다。

『저분이야요 지금 이야기한 바루 나의 뒤에서 온 분이!』

나는 돌려다 보앗다。그에는 나를 가르치면서 잇는 여자가 잇섯다。그는 말할 것도 업시 제一먼저 라트므의 시체를 발견한 반메ㅣ르 부인이엿다。

나는 자리에서 이러나 부인의 압으로 가서 동행인 듯한 거사한 신근신사에게 조금 허리를 굽히고

『사실을 말하면 저는 셋재번으로 롱방아에 도착하 것이엿습니다。그는 하여간에 무척 놀래여 뎃습니다。』

『무이 놀래구 만구 무어라고 할가요 수리에게 쏫진 병아리가티 되여 도라왓섯뎃니다』라고 부인의 동행이 말참견을 하얏다。

『제가 반·메ㅣ르입니다。』

이름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습습니다 만은 만히지도 하야주시기를!』

『아 그러십니까 천만에요 지는 쥬미에이쥬라고 합니다』

반·메ㅣ르씨는 나의 손을 잡으며

『이제는 절대로 자동차정수에 참가식히지 안키로 작정하얏습니다 "하하하"』

그러나 설마 빈번이야 그런 경품이 부를리는 입스니까 그러케까지 하실 것은 업스시겟지요 하하하』

『아니요 저는 이제부터는 롱방아산에도 아니 가겟서요。』

하고 부인은 위대한 결심을 보엿다。우리들은 모다 한바탕 우섯다。

體育의 本義

現在의 缺陷反省의 必要

(三) 龍岡 宋基洙

家庭



겨울에 流行하는 어린이의 지프테리아

◇반드시 예방주사들 마치십시요◇

爐邊雜感 (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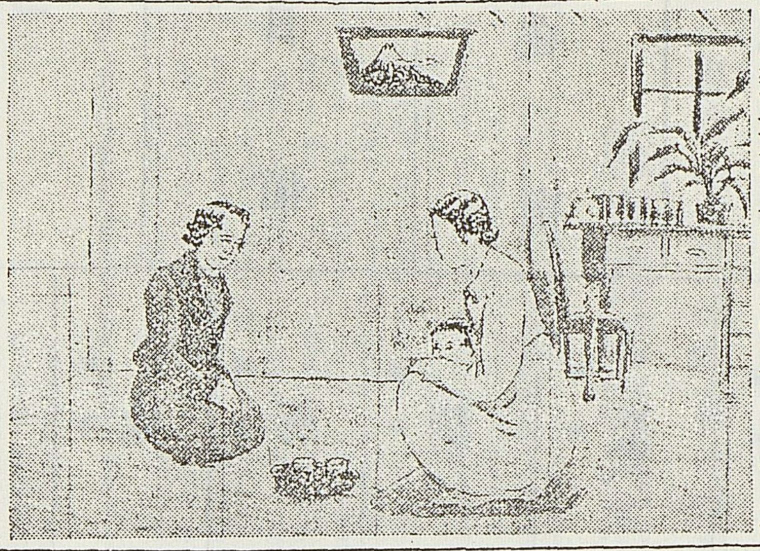
張 猛

雙影 【10】

朴 榮 濬 作

吳 鳳 協 畫





彼女의 過半生 (十)

南滿特輯版
其一

附錄

大陸開拓國策에順應 興亞建設에邁進!
가진辛酸과온갖困苦를克服하고 東洋久遠의金字塔을築成

◇ 朝鮮人滿洲移住의歷史를回顧하면 距今約一百五十年前의 옛날에비롯한다. 當時의移住者數는極히少數로 移住地도最初는 鴨綠江沿岸地이엿섯다하나 詳細한記錄은 차지볼길이업다

大體朝鮮과滿洲와의交涉은 歷史的地理的關係에서始作된다 往昔扶餘族의一派高句麗는 隋唐의大軍을 멀리遼河流域에擊退하야 其後渤海는 尙武의氣風을發成하야이 방에잇서서 五京十五府六十二州를組織하고 滿洲全土와 露領沿海州의一部를倂吞하야 一大王國을建設하얏스나 마참내北狄에滅亡함當하고 다음은女眞族이得勢하야 멀리는支那本土에遠征하고 滿洲는一時荒漠한 原野로化하얏스며 朝鮮民族은 盛히入滿居住를圖하얏스나 淸의康熙帝는 그先祖發祥地인(누루하치)發祥의聖地라하야 神聖視하고 白頭山을領地에編入하고저 烏喇總督穆克登을派遣하야 豆滿江 鴨綠江의分水嶺에定界碑를세워서 他種族의入滿을禁하얏스며 一方當時朝鮮政府의 鎖國政策으로 私越渡滿者를「越江罪」로써嚴罰하얏기때문에 朝鮮人의滿洲進出은 거의不可能한狀態에빠지고만것이다

그러나 明治二年西曆一七六九年부터 五個年에亘한一大饑饉이 朝鮮을掩襲하야生…의成熟에앗고잇는 朝鮮의災民이 法網을뚫고 滿洲에移住하는者가漸漸增加하야 其後情勢의推移에따라 渡滿禁止令도 解除를보게되고 自此로朝鮮人의滿洲移住는 逐年增加의路를걸어온것이다

◇ 鮮農大陸移殖의 經路를보건대 大體에잇서서 네가지 "코-스"로區分할수잇는바 一은 間島方面으로부터牡丹江穆稜河의 水域을따른者 其二는 南滿各地로부터 南滿鐵道를利用한者 其三은 松花江의水流를따른者 第四는 露領"우스리"鐵道를經由한者이다 奉天方面에移住는 即第二의"코-스"를밟은 開墾民으로 明治四十一年秋에 支那人의超思海와 契約하야 五家族約二十五名의 朝鮮人이 新民縣公太堡에移住 荒蕪地를開拓하야 水田을耕作한것이 水田開發의濫觴인것이다

…으로물드려가며 오날에는물의 金字塔은燦然히建設된것이다

◇ 歷史의수레바퀴는間斷업시 돌고돌아世界의情勢는나날이 推移하나니昭和六年六月十八日柳條溝의한모퉁이에서이러난爆音은混沌한滿蒙의天地에 黎明의새벽을報하야 大同元年滿洲帝國의빛나는誕生과더부러五族協和王道樂土의거룩한외침이東洋久遠의平和塔을둘려싸고우렁차게울리워젓다 이에모든愛憎과低氣壓은씻은드시사라지고 長夜이지난뒤의맑은하날이 希望의光明을던지주게되어이우리朝鮮同胞…

…로枚擧키이려울만큼 東北政權의暴政의好餌가되여왓섯든것이니 이제새삼스러히 지난날의傷處를들추어낼必要가업기로 細細한實例는 들지안흐려니와 우리의尊敬한先覺者는荊棘의山길을…

日滿不可分一德一心의關係에잇어서 滿洲國의모든國策도 日本帝國의大陸政策과完全히 符合되어야할것이며 또그러함으로因하야서만 北으로赤露의魔手를물리치고 西으로 白色人種의跋扈를制壓하야 東洋으로하야금 世界의盟主가되게하는同時에 人類永遠의平和를期할수잇는것이다 그러하야 滿洲國에서는 日本內地人에對한開拓方針의決定을보아 二十年間百萬戶, 日本開拓民의具體的計劃案이成案되여 이미實施에着手하고잇는中인바 이開拓用地의整備의必要도잇서 一方治安의恢復에따라 滿洲의耕地도漸漸擴大되는現狀임으로朝鮮農民의入滿餘地는점점縮少되는一方이다 이러한現象에鑑하야政府는新規入滿者의統制와國內現住者의統制安定에對하야 適切한考慮가잇스려다고밋는者인바 于先年一萬戶五萬人…

金奉天省長

鄭奉天市長

馬民生廳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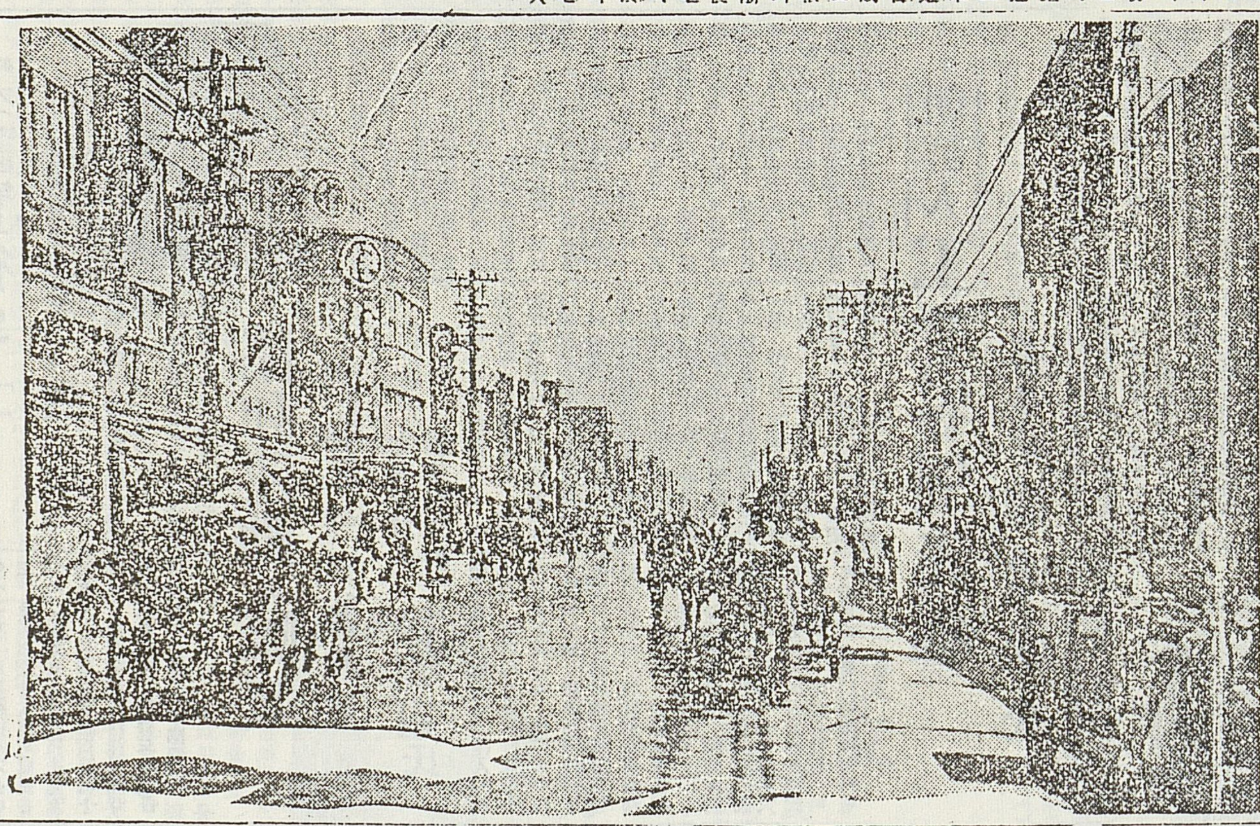
擁並大公
滿鮮日報南滿特輯版發刊紀念
◇金奉天省長揮毫

報道報國에邁進
聖業完遂에寄與하라
奉天省次長 士肥顯

滿鮮日報는 滿洲帝國內에있어서 唯一한朝鮮文新聞으로 創刊以來着着히國策에 順應하야社會의 木鐸이되여 在滿百三十萬鮮系의 興論의指導機關으로서 文章報國의實을擧揚하고 建國精神의昂揚 興亞大業의 遂行에寄與한바이큰바가잇고 社運의隆盛도한나날이進展된은實로 同慶에不堪하는바이다 今番同報에서 南滿紹介版을 刊行하야 躍進途上에잇는 南滿在住鮮系의 實相을널리世上에紹介하야써鮮系發展의 明日에備하는바잇고저한다

現今內外의情勢는 多事多難時局은더욱 重大를加하는때를當하야 世道人心의 刷新建國理念의 達成上진실로 時宜를得하고잇는 것으로 思惟한다

바라건데 一層言論報國의本領을發揮하야 社運의一段伸長發展을 不惜하기를 빌어簡單히 祝辭에代한다 (寫眞은士肥省次長)



▽—奉天繁華街春日町의全景—△

奉營運河開鑿과 衛星都市建設을計劃
『滿洲의機關庫』奉天省의躍進相

"나치스"獨逸의勃興에依한 "벨사이유"體制의 崩壞는마참내 歐羅巴의天地로하여금 또다시戰火의거리로化하게하얏고 赤色의갈날을번뜩이며 世界의赤化를向하야 虎視眈眈한 "쏘비엣트"聯邦은 "핀랜드"를그의殘暴한毒牙에 蹂躪하려고잇서 內外의情勢는 極度의不安과混沌가운데서國際間의 危機는더욱銳尖化의 一路를것고잇다 此間에處하야우리滿洲帝國은建國精神의 發揚과王道

樂土의建設에 向하야飛躍的前進을繼續하야數月을두고遂行을躍進식히든 "노몬한"事件도正義의갈날앞헤 完全히屈伏되고抗日救國을標榜하야 支那四億의蒼生을塗炭에陷케한 蔣政權도이제야完全히遂滅에逢出되여 世界史上에一新紀元을劃한東亞新秩序의建設論調가 明朗한 "코-더스"를알리고잇나니 即 日滿支三國의互助連環關係의 雄立이 그것이다 敍上한 諸情勢는必然的으로

日滿을一體로한 軍需生産力의擴充을要求하야 滿洲國의經濟統制는 決定的으로 日本의그것과 "타이엽"할 戰時轉換을必要로하얏고 產業五個年計劃도 오로지戰時資材擴充에集注되여 國家의總力을들려 國防態勢의一段의强化와 興亞建設의樞軸的謀點인使命遂行에邁進하고잇다 奉天省은 由來滿洲政治의中心이엇던바 滿洲帝國의成立以來 政治은新京으로中心이移動되고 滿洲國內商工業

及產業經濟의 心臟都인同時에交通의 中軸이되여잇서興亞建設과 產業五個年計劃의 모다 奉天을中心으로 編成되여잇는바이다

奉天省은 極東海龍縣鳳凰村東徑一二六度一六 極西新民縣饒陽河東徑 一二二度二一 極南復縣蓉山子北緯三九度二一極北遼源縣雙遼店北緯四四度二二의地點에位置하야 잇서奉天市는安奉奉山奉吉等撫順連京各幹線의交叉點으로 가차히實現의機運에잇는奉天

茫々한草原이
一躍大工場地帶로서飛躍
鐵西工業地區의偉觀
滿洲工業의前哨

奉天市는 滿洲國에잇서서 商業經濟의中心地로產業五個年計劃의發行에 興亞建設의中樞가되어 "滿洲의大阪"으로 自他가共認하는바 工業의發達은 實로驚異에値한다 그러하야奉天市長을中心으로 附近의工業地帶는 衛星과가치빗나고잇나니 이미天下에名聲이놉흔 鞍山의鐵鋼과撫順의石炭이며 本溪湖의用工業地帶亦繁榮하며 京紡及天滿紡績進出이 그것이며 全滿工業의心臟部인 奉天市鐵西工業地區의 發展이그것이다

產業統制 의戰時體制以來重要產業統制法其他의統制規定으로 强力한統制下에드러가게되여 工業의原料資材等自取引에依하야 獲得하기가不可能하게되고 또日本의鋼鐵, 米國等諸外國으로부터의輸入을 不可避로하는工業은 日本의圓"블럭"內輸出制限과 今次의歐洲動亂에依하야輸入이杜絕되어資材가不

少한만큼 今後種種의對策을 考慮치안흐면 아니될現狀에 이르러잇다 더욱이各工場의 動力活動의 原動力이되는石炭問題는 一段의緊喫한問題로서 各工場의

石炭需要 는生產力의 擴大와한가지加速度로 增加되여가고잇는바 近來에이르러統制國策의遂行에따라 石炭도統制되어 配給은圓滑치

못하고 더구나工業炭의配當은顯著히減少되여 各工場은 苦境에陷하야 不得已操業短縮을行하지안흘수업는 狀態에빠지어잇다 그때서時局의影響에依하야資材의取得難과 技術者獲得難으로 工場의新設及擴散은 暫時停滯의狀態에잇스나 이것은現時局에關聯한一時的現象인것이오 今後

滿洲國의產業開發의 非常한躍進과아울러 工業의發展은一層重要性을 加하는同時에一段의發展이 約束되고잇다

鐵西工業 地區가全滿에잇서서가진바 重要한地位에鑑하야 南滿의工業을論함에當하야서 紙面의關係도잇는故로 鐵西工業地區의槪況을略述하야 이것을通하야써 南滿工業發展의面貌를 窺察

鮮系의木鐸
同胞의趨向을더욱明示하라
奉天市副市長 奉天省協和會長 松田芳助

滿鮮日報는 大同元年滿洲建國의 瑞氣를바더 滿蒙日報의題號로써 大陸의새벽을報하고 誕生한바 爾來滿洲唯一의朝鮮文紙로써 日滿一體 鮮滿一如의精神을 鼓吹하야 民族協和 宣德達情에貢獻한功勞는 진실로큰바가잇다 特殊事情을가진鮮系의木鐸으로서 그趨向을闡明하

고 自蔽을徹廢하야鮮系同胞의 動向進行의發展을圖謀하고잇슴은 다만鮮系同胞의欣幸事만임에不啻다 滿洲의國礎確立上 진실로慶賀에不堪이다 貴社에잇서서는 全國唯一의大都市인 奉天의地位에鑑하야 奉天支局을總支局으로昇格하고 特派員을 派遣하야 內外共히機能을發揮하야 其發展事業의一端으로玆에南滿 紹介版의發行을企함은 참으로慶賀해마지안는同時에 將來의御發展을祈한다 (寫眞은松田副市長)

南滿特輯版의 發行에際하야
奉天總支局長 李允晫

在滿一百三十萬의朝鮮同胞가今日의 地盤을獲得한것은 決코一朝一夕의 事가아니다 거기에는先人들의 發貴한피와 가어린이잇고 거룩한精神이 呼吸하고잇다 그들先人의 남겨노흔足跡을찾고 우리의現狀에對한正確한 認識을把握하야 모름즈기嚴肅한自己反省과 批判이잇서야할것이며 써압날의 發展飛躍에 備하는바업지못할것이다 南滿特輯版發刊의意圖는正히 이點에서 出發한것이다 그러나制限된紙面과 不充分한材料로 相當을免치못한 點이不無하야 스스로愧赧에 不堪이다 다만讀者諸位의理解있는叱責을바라고 今番의發展에 寄與되는바잇다면 無限의榮光으로思料하는바이다

王道之光
祝滿鮮日報發展

工作幹事會
各種工作에盡力
모히라! 鮮系會員이여
幹事會의傘下에
奉天 鮮系

滿洲에잇서서의 協和會의結成은滿洲國建國前後軍閥暴政의社會的汚毒을 廓淸改革하고 王道國家의建設을爲하야 在滿諸民族의 中心勢力이될大和民族을中核으로하야 鮮滿漢蒙의各民族이 協力에依하야王道政治를基調로하는 獨立國家의完成에 對한努力의總和가 그것이엇다 故로神政民을長으로한自治指導部는 大同元年滿洲國의 成立과함께政府에드러가官吏가된一部를除하고殘留한一部로서 協和會를結成하니 이世界에類例를보지 못한民族協和의大御가許히許히든날이 大同元年七月二十五日이엇다 爾來協和會는 그綱領의指示에따라唯一永久擧國一致의 實踐組織體로서政府와表裏一體가되어一,建國精神를顯揚一,民族協和를實現一,國民生活을向上一,宣德達情을徹底一,國民動員을 完成하야써 建國理想의實現, 道義世界의創造를期하고 發展하야온것이다 그發展의過程에잇서서理想의達成을 促進식히기爲하야 여더가지로 有効適切한組織形態가생기게되엿나니 在奉四萬鮮系의協和理念의徹

底를期하야써 建國精神의發揚과 興亞建設에 寄與코저 지난九月에誕生된것이 鮮系工作幹事會는 鮮系會員의會員信賴獲得에對하야 가장積極的活動을開始하고 最近에 至하야서는 月二回의定例幹事會를開催하야 工作方針의再檢討와相互連絡의緊密을圖하야 管若所期의目的에向하야實踐을專業場하고잇서在奉鮮系의精神工作에民族相互間의 軋轢摩擦을根絕식히고 國民으로 서의融合을爲하는協和工作에國民生活의 安定을期하야厚生工作에鮮系의細細한事情을 ,視察하야써 宣德達情工作에其他組織及興亞工作에 그貢獻이不尠한바在奉四萬의鮮系同胞는 鮮系工作幹事會의 빗나는旗ㅅ발아래로 모혀들 어이더케협으로因하야서 만안날의幸福과生活의 安定을得할것으로써 興亞民族의인흠을빗나게할수잇슬것이라幹事諸氏의 熱烈한誠意와 不眠不休의努力은갓가운將來에 반드시所期의目標에 到達하고야말것으로 同幹事會의活動은注目과 期待가크다하겟다

親和協力
祝滿鮮日報南滿紹介版發刊
奉天市長 鄭島

◇現況槪觀

(一) 紡織工業 康德六年度生產豫定額은前年度의 一·五倍乃至二·五倍增

(二) 金屬工業 操業十九工場이나 生產品大部分이擴張資材이며 本社公稱資本金合計는 一億九百四十三萬圓으로 鐵西工業地區主要操業九十七工場의 本社公稱資本金合計의約半額에達하는金額이다

(三) 機械器具工業 操業十八工場의 本社公稱資本金合計四千四百三萬圓

(四) 化學工業 日滿만으로는 到底히原料를調達키困難함으로 相當

△操業工場(康德六年三月末現在)

一、操業中工場	九十九
二、建築中工場	三十一
三、未着工工場	四十四
合計	七十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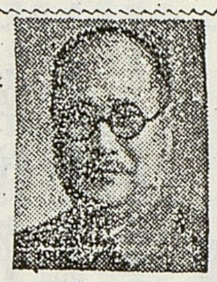
△本社及本店公稱資本金十萬圓以上의操業工場數(六月末現在 別途調查)

工業種別	本社在奉天工場數	本社在奉天外工場數	合計
紡織工業	七	八一	八
金屬工業	一一	一一	一一
機械器具工業	五	三	八
化學工業	九	一	一〇
窯業工業	七	一一	八
食料品工業	一	三	四
製材木製品工業	一	三	四
雜工業	一	一	二
合計	七六	二〇一	九七

(八)雜工業 (七)製材木製品工業 (六)食料品工業 (五)窯業工業 大槪以上과가튼 現狀으로 問題가工場關係인만큼 各部門을通하야 詳細한數字를發表할수업스며 就中「生產額」「勞働者數」等은 發表가困難한바 日滿勞働者의比例는大體十對一의程度이다

卓越한政見과 高邁한理想을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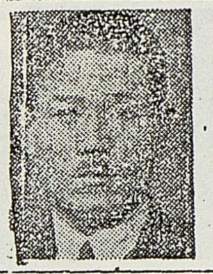
奉天市監理科長 洪永善氏



滿洲國에잇서서의 鮮系代表官吏로서 우리는 奉天에洪永善氏를가젓다 氏는卓越한政見과 高邁한理想을所有한政治家이며 溫厚와仁慈의德을兼備한 德望의人이니 現在滿洲帝國의心臟都市인滿通大奉天行政의總本營 奉天市監理科長의要職에잇서 百萬市民의 衣食住에直接으로參劃하야 市民生活의合理的向上을圖하야 努力하고指導하며 市公署內의人氣를一身에集中하고 그依賴이全面的說揚의標的이되여잇스나氏가朝鮮에잇서서의 經歷으로보아서도 알수잇슴과가치 그力量과手腕는 을날만하고 餘裕가綽々하야 如何한大任이라하야도 오히려氏의能率을 完全히消化하기에 不足하리라함은 氏를아는人士들의 一致한所感이다 그러하니만큼 그에對한一般의輿望과期待는크다 氏는禿頭好顔으로 그가진바 遠大한抱負를推測할길조차업스나 多端한政務의사인지라도 우리는氏의街頭로나서 더니여우리同胞의 日常生活에直接의指導와訓育을밧지안흐면아니되겟다 우리는氏와가튼指導者를가진데對하야 無限의榮光을느끼는同時에 氏를接觸할機會가 자조자조잇서지기를熱望하야마지안는者이다(寫眞은洪永善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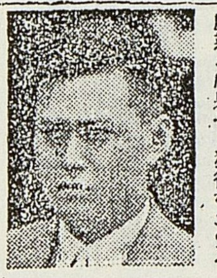
先天下之憂而憂하고 後天下之樂而樂

熱과誠의人 金泰德氏



젊은指導者

一路協和에邁進하는 協和會市本部 金學元氏



(寫眞은金學元氏)

寡默實行의士

李應烈氏



協和運動의驍將

言論界에도著名한 在滿朝鮮人通信社主幹 徐範錫氏

朝鮮人工業界의先驅

三昌膠皮工廠 羅景錫氏



千古의荒地를갈아 營々히水田開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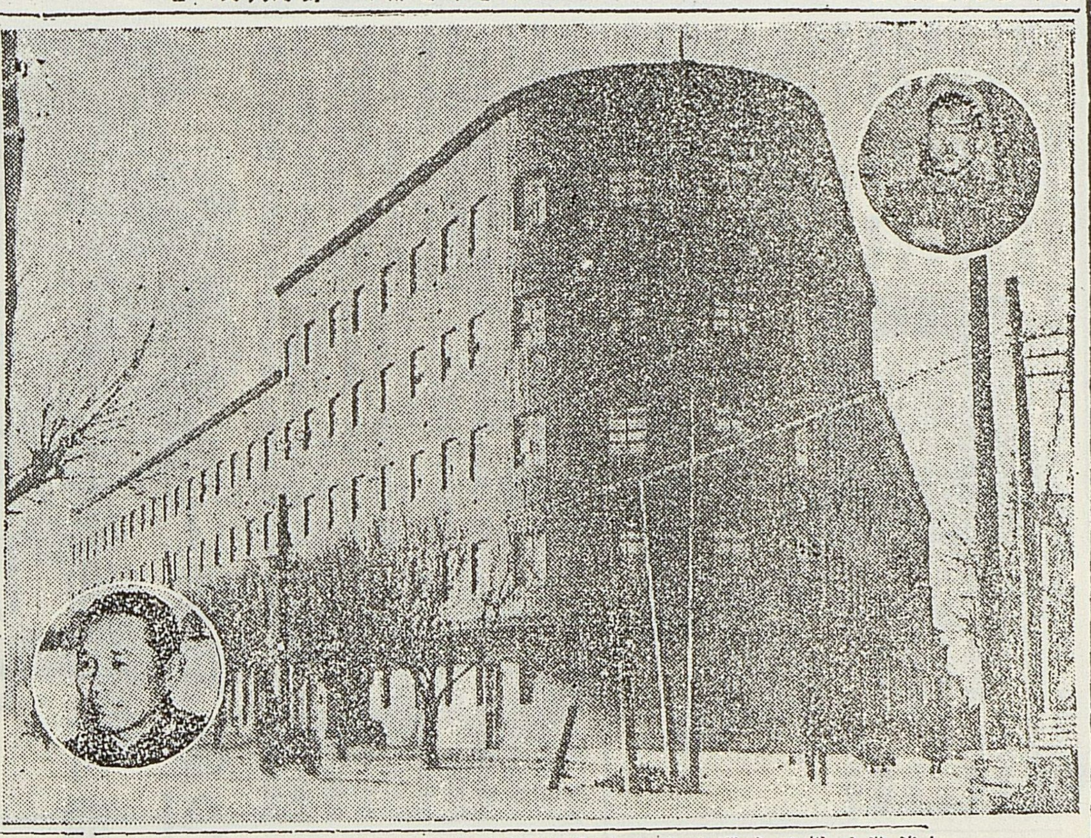
그뒤에鮮農의苦心은크다

滿鮮拓植發展小史

今日에光輝燦然토다 우리私學界의恩人

東光學院常務理事 金秉甲氏





「不動心」을體得

奉天省本部 李永高氏





警民一致의 理想實現에努力하는

田鳳萬氏

玲瓏多彩한

實踐의人 曹元煥氏



躍進奉天의일꾼

剛直으로一貫한池錫模氏

網本支店長



三信貿易公司

滿洲貿易界의王者로君臨

在庫豐富는全滿一



不言實行의人

東文社支配人 金泰東氏



信念에사는

朴承薰氏



沈着의人

金河龍氏

酒類都賣巨商

吉野公司



米穀貿易의超弩級

合名會社 新盛商會

盤石가튼基礎세운金贊亨氏



覇氣滿々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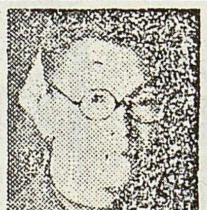
實業家 金基弘氏



奉天의鬼才 徐相哲氏

洋裁界의자랑

大屋被服公司 趙重爽氏



唯一의時計商 李鍾言氏



重厚한溫情家

黃元憲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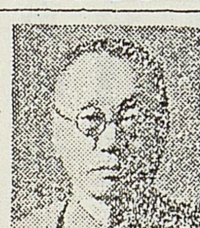
康德金屬設立

힘드는靑年社長 高日龍氏



有數實業家網羅

農民의慈父 趙鼎華氏



實業界의重鎭

金城精米所 金炳泰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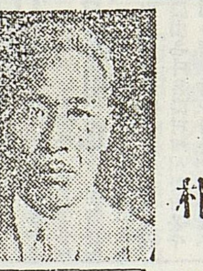


智略縱橫 朴能漢氏



滅私精神의權化

朴根昌氏



溫厚篤實의士

金養德氏



時代의寵兒

(멧세지의郵券하는東山洋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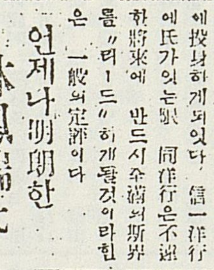
將來가期待되는 金陽根氏



언제나明朗한 林鳳瑞氏

布木界의王座

都賣商信一洋行



『料理自慢』

三千里館

女性의龜鑑

巾貴女女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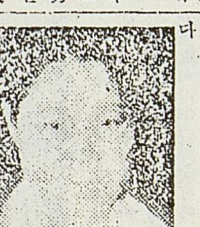
每日新報支局 李吉石氏



朝鮮日報支局長 金顯恩氏

事業에精進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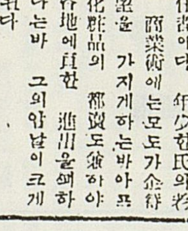
金弘淵氏



高級化粧品 安聖運氏



實業界의重鎭 徐在豐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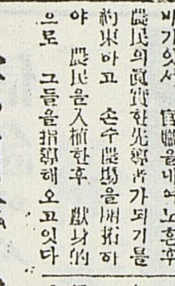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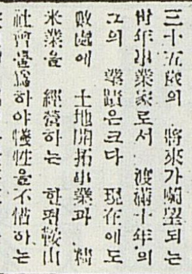
千辛萬苦農場을開拓코 農民指導에挺身活動

鐵嶺協和運動의先驅 崔君相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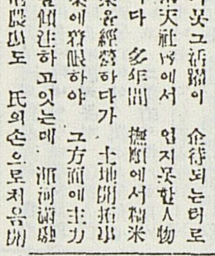
鞍山普校를創設

協和運動의理論的指導者 實業家 趙寬錫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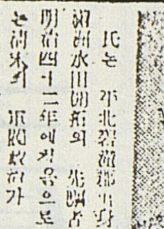


運河의重鎭

北市場普校後援會長 尹商源氏



水田開發의先驅者 金仲三氏



協和農村의創設功勞者 崔柄奎氏



事業에健實한 申貞旭氏



七顚八起難關을突破 初志貫徹에邁進

鐵嶺實業界의泰斗 李用錫氏



宗教報國에邁進

마음의開拓者 李昌亭氏



信實한商業家 趙華淵氏

前途洋洋한 鐵嶺公司



爲勵의元老 金相昆氏

模範農村建設에 運河住民一意精進

우리의永住地로삼자고



多數英才를薰陶한 尹泰彬氏

敏活한手腕家

教育運動에도東奔西走 鞍山 李普翊氏



洋服界의權威 田才均氏

農民指導의第一人者 申周徹氏



模範村建設에

活躍하는 韓應福氏



農民의先導者 鐵嶺金融會理事 金谷文夫氏



地方의德望家 徐錫潤氏



大地의아들 河炳淶氏

開拓民의師表

多情多恨한 文武一氏



沙嶺地方의功勞者 金斗吉氏



鞍山商界의中堅 金顯秀氏



篤實한農家 金俊伊氏



